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작부터 삐걱

시 “공론화위 우선” vs 시민모임 “숙의조사 수용”

시장실 앞 시위에 ‘버르장머리’ 발언...갈등 우려

광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놓고 시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권익위원장이 중재를 포기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일방

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광주시는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은 안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시민단체와 논의에 나선 최영태 권익위원장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

화를 중단했고, 시민단체는 광주시장실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광주시와 마찰을 빚는 등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모양새다.

이번 갈등으로 ‘찬바람 불기 전에 도시철도2호선 건설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이용섭 시장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확정된 도시철도2호선을 이 시장이 ‘공론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논란을 재점화했다는 지적이다.

사람 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광주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모임은 최근 최영태 권익위원장 주재로 3차례에 걸쳐 광주시 관계자들과 지하철2호선 공론화 관련 준비회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시민모임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숙의조사’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 대안을 내놓지도 않아 공전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영태 위원장의 대화중단 사과와 일방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안 취소, 지하철 공론화 과정에 표본 시민의 직접참여와 학습·토론 기회보장, 이용섭 시장의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준비를 위한 직접 대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며 “공론화포기, 일방적공론화기구구성등은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이다. 시민모임에서 위원명단 편향성 등 문제를 제기하면 면담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견을 마친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시장실을 방문, 이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자들이 이 시장을 면담하는 동안 일부 회원들은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없이 방문한 이들을 막으려는 시장실 관계자와 몸싸움과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들과 면담 중이던 이 시장은 시민모임이 사전 약속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데 대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며 불편한 심기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시민모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론화 방식이 숙의조사만 있는 게 아니다”며 “도시철도2호선을 빨리 착공하라는 시민도 있는 만큼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이 시장의 ‘버르장머리’ 발언에 격앙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왕골 깎질 벗기기 분주

16일 오전 왕골돗자리로 유명한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외세마을 주민들이 마을 정자에서 왕골 깎질을 벗기고 있다. 왕골은 수확 후 마르기 전에 깎질을 벗겨 햇볕에 잘 말린 후 돗자리, 베개 등의 제품을 만든다. /김태규 기자

광주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 설립 가시화

광주시가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에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설립지원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일의 자

동차 인증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함께 광주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론 건의해왔다.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는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 내 1만6,500

㎡ 부지에 연면적 8,264㎡, 지상 2층 규모로 2023년까지 센터 건립과 함께 인증평가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센터 내 구축장비는 친환경자동차 구동축전지(배터리) 안전평가 장비, 친환경차 수소 및 배터리 등 고위험부품의 충돌에 의한 폭발·파손 등을 평가하는 충돌 안전성 평가장비, 첨단 자율주행 자동차 확대에 따른 첨단안전센터 부품평가 장비 등이다. /황애란 기자

광주은행 ‘무늬만 향토은행’

10월 임시주총서 ‘상장폐지’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 무색

광주은행이 창립 50년만에 JB금융지주 완전 자회사 편입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향토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금융의 공적기능을 담당했던 광주은행이 거대 금융그룹에 완전 편입되면서 ‘무늬만 향토은행’으로 존재해 지역경제의 선 순환 구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지난 9일 광주은행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광주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1.8814503으로, 주식 교환일은 오는 10월 9일이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내달 20일 광주 본점에서 임시주총회를 열어 JB금융지주와의 ‘주식 포괄적 교환 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주총회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의하면, JB금융지주는 10월 9일 주식을 교환해 10월 26일 추가상장하게 되며 광주은행은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이처럼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로 완전 편입되면서 지역민들은 향토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은행이 광주·전남 지역 자본의 선 순환 구조를 이끌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마중물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로 완전 편입되면 향토은행으로서 껍데기만 남은 것 아니냐”며 “기술력과 장기 비전 등을 믿고 대출해주는 지역 향토 금융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기에 1968년 지역상공인들이 출자해 설립한 광주은행이 2014년 전북은행이 대주주인 JB금융지주가 인수하면서 수익성에 치중된 나머지 지점 수 감축 등 지역민들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후퇴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지역 지점 10곳 이상을 2.3.4층으로 이전 했으며 수익구조가 약한 지점을 통폐합하면서 지역에서 15개 지점 이상이 문을 닫았다. <2면에서 계속>

/조기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광주·전남

한마음 걸기대회

점수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8월 6일(월) ~ 9월 14일(금)
- 참가자격 : 광주·전남 시·도민, 청소년, 학부모, 일반 참가자 등
- 참가비 : 무료 (전원 기념품 증정)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http://walk.jndn.com>
- 이메일 : jndnnews@naver.com
- 카카오톡 : jndnnews (성명, 성별, 연락처 명기)
- 문의전화 : 062)720-1011, 1099
※ 선착순 접수자에 한해 경품추첨

경품행사
TV, 냉장고, 비데 등
다양한 상품 마련

- 📍 일 시 : 2018년 10월 6일(토) 오전 9시
- 📍 장 소 :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구간 : 광주천일원)
- 📍 주 최 : M 전남매일 📍 주 관 : JM스포츠
- 📍 후 원 :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
 - 골드클래스